한국조경학회지 40(6): 98~111, 2012. 12. http://dx.doi.org/10.9715/KILA.2012.40.6.098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도시묘지 활용

이숙미* · 오충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Use of Urban Cemetery for Field Trips

Lee, Sook-Mee* · Oh, Choong-Hyeon**

*Dept. of Biological & Environm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Dept. of Biological &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und the possibility of using cemeteries within the locality as field trip destination.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active progress has derived the difference and the implic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found that the cemetery has sufficient resources based on experience-learning place within the community. Therefore, when the active educational program was developed; it gained more abundant resources for education, as well as provided more differ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han now. As the result of comparison, the reason why the educational program is actively progressing in the American cemeteries is that a beautiful and fresh environment has been built up such as a park or garden in a cemetery and has been preserved as a healthy forest ecosystem. Furthermore, it is because they actively used the cemetery within a community as the subject. If our cemetery can be renovated and the funeral culture can be changed to break down the image of an avoidable unpleasant facility, it would play a role as a field for learning experience.

Key Words: Renovation of Cemetery, Funeral Culture, Community Cemeter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묘지가 갖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묘지는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도시는 더욱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지게 되며, 주민과 학생에게는 현재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묘지에서 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묘지를 정원이나 공원과 같이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보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묘지를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묘지를 리모델링하고 장묘문화를 변화시킨다면 묘지가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 묘지 리모델링, 장묘문화, 지역사회 묘지

Corresponding author: Choong-Hyeon Oh, Dept. of Biological &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Tel.: +82-2-2260-3312, E-mail: ecology@dongguk.edu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물이다. 이와 같은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처럼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실제의 장면에서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전개하는 학습방법으로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의 공간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 사회와 문화의 현장, 자연환경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견문을 넓히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현장체험학습의 장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도시개발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고 지역사회의 개념이 희박해졌으며,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녹지가 감소하였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식물원 등도 훌륭한 교육의 장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현장이 있다면 효율적이고도 활용도 높은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묘지는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공간이자 가족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어느 지역에나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며, 획기적인 장법(葬法)이 개발되지 않는 한 향후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 간 지속적으로 이용될 공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묘지는 도시 내에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인 묘지가 교육 소재로 발굴 또는 개발 되어 지역사회[1)]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교육적 활용도가 낮은 도시묘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분석하여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시묘지의 유형 분류

법적으로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및 관리주체별로 개인·가족·종중·법인 등 한 구역 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 기능과 대상에 따라 묘지는 표 1과 같이 국가 유공자와 순국선열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지자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의 공동묘지, 개인묘지를 포함한 가족묘지,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모신 왕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한 주제공원 중 하나로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묘지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도시묘지의 유형

묘지 유형	운영 및 소유주체	대상자
국립묘지	국가, 보훈처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공동묘지	지자체, 법인	일반인
개인·가족묘지	개인·종중·문중	묘지 소유자 등 소속원
왕릉	국가·지자체·문화재청	역대 왕조의 왕과 왕비
묘지공원	지자체	일반인

표 2. 전국 묘지 현황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기타
국립묘지	8	2	1	-	5
공동묘지	540	7(1)[a]	101	124[d]	308
왕릉	19	7(5)[b]	11	-	1
묘지공원	59	4(2)[c]	12	3	40
계	626	20(10)	125	127	354

[a]: 공설묘지 5개소는 경기도 파주 등 서울지역 외에 위치하고, 사설묘지 2개소만 서울지역 내에 위치함
[b]: 왕릉의 분묘는 7개이나 5개소로 통합 관리함
[c]: 국립서울현충원은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중복 산정되고, 서울추모공원은 분묘가 없는 화장시설임
[d]: 인천광역시는 섬 지역(강화군, 옹진군)과 서구를 제외한 도시지역 합계임

전국의 분묘수는 약 2천만 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가족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전국 분포 현황은 표 2와 같이 국립묘지 8개소, 공동묘지 540개소, 왕릉 19개소, 묘지공원 59개소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묘지를 시설물의 관리대상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장소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시묘지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지로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도시묘지로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묘지유형은 국립묘지, 공동묘지, 왕릉, 묘지공원이다.

2. 현장체험학습장 유형 분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의 상황이나 실물을 접

하여 참여하고 느끼고 조작해 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을 말한다(이명기 등, 2000). 현장체험학습과 유사한 용어로는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이 있다. 현장학습이란 교실 밖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며 구체적인 현장의 경험을 통해 사상 간의 관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을 말한다(황홍섭과 이상례, 2001). 체험학습은 지나치게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진, 메마르고 무기력한 지식의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체험학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산지식을 배움으로써 교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강영혜, 1999). 사실상 현장체험학습과 현장학습, 체험학습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활동집단에 따라 개인학습활동과 집단학습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집단학습활동은 다시 규모에 따라 소집단, 학급, 학년, 학교단위 또는 가족동반, 동호회와 청소년 단체활동으로 분류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홍섭과 이상례(2001)는 현장학습의 유형을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학습과 간접 및 사이버상의 현장학습으로 나누고 있다. 이명기 등(2000)은 현장체험학습장을 학습장소별, 교과별, 학습방법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현장체험학습이 가장 활발한 교육 분야는 환경교육일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장소는 실내보다는 야외공간에 위치한다. 이러한 환경교육장은 장소의 물리적 특성, 규모, 접근성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환경교육의 활동목적과 활동소요시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김인호와 안동만, 1997; 김인호와 김귀곤, 1998). 정수정(2008)은 환경교육장의 설립목적에 따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구분하여 목적의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보유, 관리, 지원하는 교육시설(최석진 등, 2010; 재인용)인 환경교육센터는 지정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그 기능, 규모, 운영주체 등을 고려하여 국립형, 광역지자체 공립형, 기초자치제 공립형, 사립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장의 유형은 교육청 등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장의 유형과 일부 유사하지만, 환경교육이라는 틀에서 바라볼 때 활동목적이 중요한 반면 현장체험학습장은 어떤 교과 또는 어떤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지와 학습대상자의 규모에 따른 활용성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점이 다르다.

그 외에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의 평가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환경인 시설, 운영관리, 보육과정 즉,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장소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으로 볼 때 시설의 환경적인 조건과 인적 구성 즉, 운영관리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도시묘지를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시설, 인적자원,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환경교육시설은 자연공원 내 학습시설과 같이 자연의 이해·보전을 위한 자연계 시설이 41%, 환경보전, 환경학습을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리사이클 플라자가 30%, 박물관과 기타 시설로 분포하고 있다(정수정과 이재영,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0년 지정한 현장체험학습기관은 총 215개소이고 이 중 도서관 25개소, 박물관 및 역사관 56개소, 사적지, 기념관, 공원 68개소,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이 66개소였다(http://www.sen.go.kr). 이것을 이명기 등(2000)의 유형분류에 따라 학습장별로 구분해 보면 기관중심 27개소, 문화재중심 55개소, 시설중심 114개소, 자연중심 19개소로 시설중심 학습장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집계한 810개의 서울시 관할 기관별 체험학습프로그램 중에서 국립묘지, 왕릉, 기타 고분이나 보존묘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9개였다.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왕릉 및 고분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알아보고 전통 제향 행사를 관찰하고, 상징물을 그리는 것이었으며 국립묘지에서는 전시관 관람과 묘역정리, 참배가 주요 활동이었다.

3. 도시묘지의 현장체험학습 활용사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는 제한적인 학교 내 인적·물적 환경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채택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김호중(2003)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박은경(2010)은 중학교 교과내용으로, 홍기대(1999)는 사회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체험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되는 자원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김성경(2004)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양재천을 조사하였으며, 변성우(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하천인 홍제천이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적인 요소를 지닌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재승(2011)은 고등학교 지리과 수업에서 대구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삶의 질을 주제로 학습하였을 때 교실에서의 수업보다 현장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했을 때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와 획득한 지식의 분석, 해석,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민길홍(2008)은 서울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활용한 중학교 역사교육이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계교과면에서 보면 지리과, 사회과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의 연구사례가 교과목을 먼저 정하고 그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필요한 현장을 찾아 학습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묘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망우리묘지공원을 대상으로 안장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 중심의 역사체험학습을 실시한 김원중(2010)과 송현(2009)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주민의 산책과 운동 공간으로만 쓰여 오던 망우리묘지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현장체험 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묘지가 역사학습에만 활용되고 있어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Lee(1969)는 미국 오레곤 주 일리노이 지역 묘지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미술, 언어, 역사, 수학 등의 수업에 도움이 되고 묘지에서의 예절을 익히고 과거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다. Bruce et al.(197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역사학습을 위해 묘지를 활용할 때 사전에 토론과 야외학습의 방향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조사야장에 비석에 있는 출생, 사망날짜, 사망원인 등의 인구통계학적 내용, 비석의 재질, 그리고 수집한 자료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술, 과학, 수학, 사회, 언어 등의 활동을 교실에 돌아와서 정리하는 활동까지 제안하고 있다. Bowden(2006)은 초등학생의 역사와 예술학습에 묘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제안했다. 인류학, 지리학, 역사, 사회, 경제 및 예술에 대한 다양한 과목과 연계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현장체험학습 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Hurst(1977)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묘지에서 지질, 수학, 미술, 언어, 가치관 등의 학습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와 조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장체험학습의 연구에서보다 묘지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다양한 과목과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묘지라는 같은 대상을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했을 경우 이와 같이 다른 연구가 진행된 것은 묘지의 내외부 환경에 차이, 즉 자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현장체험학습 활용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4. 도시묘지 관리방향의 변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를 그 형태와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신의 처리의 장소이며 조상을 추모하는 기념물이고 조상숭배와 자손발복을 기원하는 의례의 장소로 신성시해왔다(장철수, 1995; 박태호, 2006, 박종천, 2010).

그런데 도시의 묘지는 현대에 와서 집값 하락의 요인, 환경위생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는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여 매장묘지의 수요는 감소하고, 화장 후 봉안당이나 수목장[2], 자연장[3] 등 새로운 장사시설의 수요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묘지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묘지의 공원화사업[4]과 매장묘지를 자연장지로 재정비하는 사업[5]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묘지를 도시녹지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http://www.berlin.de) 주거단지 내에 입지하여 묘지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 도시공원과 같이 휴식과 산책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일부 종교와 죽음관련 교육을 묘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되는 예가 많지 않았다. 2010년 독일 지역환경보호협회(Bund Heimat und Umwelt)에서는 묘지가 자연환경, 문화 등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진 매력적인 장소이며 묘지에서 가능한 체험활동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독일 전체적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간 방문객이 150만 명에 달하는 페르라쉐즈 묘지(Cimetière du père Lachaise)를 비롯한 몽파르나스 묘지(Cimetière du Montparnasse), 몽마르트 묘지(Cimetière de Montmartre) 등의 대형묘지들이 주요 관광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1800년대에 조성된 묘지가 현재까지 도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문중 중심의 묘지가 아닌 종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묘지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교인 가톨릭의 성당이 위치한 마을이나 도시의 중심부에 자연스럽게 묘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홍석기, 1997). 하지만 이러한 묘지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된 것은 이들 묘지가 도시기반시설이자 녹지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방문객에게는 문화 · 역사의 현장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여전히 묘지로 사용 가능한 장소이자 역사교육장소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리 묘지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습자료나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프랑스의 역사를 해외관광객에게 알리는 중요한 장소로의 활용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묘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자료는 인터넷과 문헌을 통해 수집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비롯한 매장묘지가 발달하고 지역사회 내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많은 미국을 선정하였다. 미국에는 경관이 아름답고 숲이 우거진 묘지가 많고 이를 활용한 묘지해설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외 국가의 경우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묘지가 현장체험학습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역사가 짧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앞서 고찰한 해외사례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묘지를 선정하였다. 즉,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교육장소로 활용 가능한 묘지 중에서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 및 산책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유명인사의 묘를 찾는 방문자가 있으며, 인구가 많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묘지를 선정하였다.

도시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에 앞서 현장체험학습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장소인 학습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묘지는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의 묘지는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이 되는 각 묘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주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학습대상자 및 프로그램 운영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앞서 분류한 현장체험학습장의 요건을 반영하여 도시묘지 유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기준 평가와 정비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해 현장체험학습장의 요건과 도시묘지 유형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대상지 사례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현장체험학습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비 시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도시묘지에 대해서는 묘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자 또는 운영주체, 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묘지의 유형, 학교의 교과와 연계되어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 각 묘지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과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묘지에서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 · 분석하였다. 미국의 교사들의 수업자료 공유 사이트인 'Lesson Planet'(http://www.lessonplanet.com)에서 총 40만 건 이상의 자료 중 묘지와 관련된 체험학습프로그램 자료를 검색하여 361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별점 다섯 개 만점에서 네 개 이상을 받은 교사들이 가장 공유를 많이 하는 115개의 수업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묘지의 역사, 종류, 연구와 관련 서적에서 묘지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묘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연구논문은 Education Resource Information Center(http://eric.ed.gov)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 분석하였다. 체험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에서 수집이 불가능한 일부 자료는 관련된 연구논문과 온라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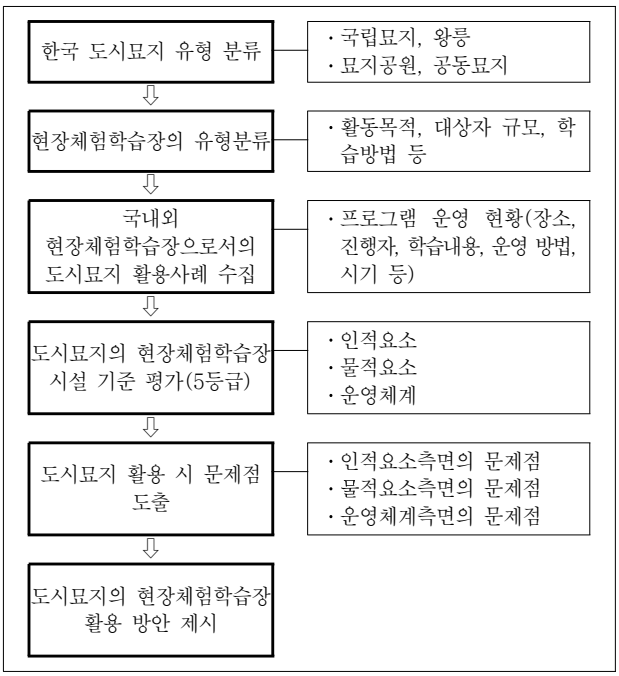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자료 제공사이트인 '창의・인성 교육넷'(http://www.crezone.net)에서 수집하였다. '창의・인성 교육넷'은 2010년 8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수업지도안과 수업모델을 제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배경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약 15,000개의 수업지도안 중 서울과 그 인근에서 진행되는 묘지 관련 8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웹사이트(http://www.sen.go.kr)를 통해 공개된 자료 중에서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된 215개소와 체험학습기관별 학습프로그램 810개 중 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묘지를 현장체험학습장의 관점에서 교육장소,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시기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묘지 유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 여부 및 적정 시기, 학습내용의 개발 및 적용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였다(표 3 참조).

먼저 도시묘지별 물적요소인 교육과 휴식이 가능한 시설의 확보와 교육의 직적접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평가하였다. 현재 묘지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정비 후에는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요소인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평가하였다. 교육 전문가의 상주 또는 확보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접근이 용이하여 피교육자가 이용하기 편리한지를 평가하였다.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교과가 다양하고 융합교육이 가능한 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정기적 운영 여부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인적, 물적, 운영체계의 세 가지 요소를 각각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을 우수(4점), 양호(3점), 보통(2점), 미흡(1점)으로 평가하였다.

각 묘지별로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모든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표 4와 같이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도시묘지별 평가를 시행한 후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각 요소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 3. 도시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인적요소	교육자	전문가 확보여부	우수(4)	전문 교육자 상주	
			양호(3)	전문 교육자 확보	
			보통(2)	일반 교육자 확보	
			미흡(1)	교육자 미확보	
	피교육자	피교육자 접근성 (이용률과 연관)	우수(4)	도보이용 가능	접근거리 1km 이내
			양호(3)		접근거리 1~1.5km
			보통(2)	도보 이용 불가, 대중교통 이용 10분 이내	
			미흡(1)	대중교통 이용 불편 또는 불가	
물적요소	시설	시설 확보	우수(4)	방문자센터, 교육장, 휴게시설, 화장실 중 4가지 모두 확보	
			양호(3)	시설 3가지 확보	
			보통(2)	시설 2가지 확보	
			미흡(1)	시설 1가지 이하 확보	
	자연자원	자원 활용	우수(4)	숲(교목, 관목, 초본 등 층위구조 다양한 숲), 수생생물, 조류, 곤충 모두 활용	
			양호(3)	위의 자원 중 3가지 활용	
			보통(2)	위의 자원 중 2가지 활용	
			미흡(1)	위의 자원 중 1가지 이하 활용	
운영체계	프로그램	다양성 (융합교과)	우수(4)	과학, 수학, 예술, 문학, 생태, 역사, 사회 등 융합가능 교과 4개 이상	
			양호(3)	융합가능 교과 3개 이상	
			보통(2)	융합가능 교과 2개 이상	
			미흡(1)	융합가능 교과 1개 이하	
	안정성	운영 주기	우수(4)	정기적, 비정기적(이벤트성) 프로그램 모두 운영	
			양호(3)	정기적 프로그램만 운영	
			보통(2)	비정기적(이벤트성) 프로그램만 운영	
			미흡(1)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음	
총점			24점(100점 환산 평가)		

표 4.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등급

평가등급	평가점수 기준
Ⅰ	90점 이상
Ⅱ	80점 이상~90점 미만
Ⅲ	70점 이상~80점 미만
Ⅳ	60점 이상~70점 미만
Ⅴ	60점 미만

Ⅳ. 결과 및 고찰

1. 묘지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1) 미국

아메리카대륙 개척시기부터 많은 전쟁을 겪어 온 미국은 집단 묘지가 발달하였다. 미국도 사유지에 묘지를 갖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개 지역 내의 공·사설 공동묘지를 이용하거나 국립묘지를 이용하고 있다. 1800년대 중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 당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교회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자연과 예술, 국가 정체성과 죽음이라는 우울한 주제를 낭만적인 개념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킨 전원묘지운동[6](Rural Cemetery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시작으로 매사추세츠 원예협회는 조경가와 협력하여 정원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된 미국 최초의 정원묘지인 마운트어번묘지(Mount Aubrun Cemetery)가 탄생하였다. 마운트어번묘지는 비위생적이고 오염된 환경과 대비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19세기 미국 공원운동[7]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Greene, 2008).

미국 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특정한 묘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내에 있는 묘지에서 그 묘지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덕분으로 지역사회의 묘지는 그 어떤 시설보다도 쾌적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공공장소가 되었으며 역사와 문화, 생태와 미술 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장소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묘지는 과거 그 지역의 유명한 인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대별 인구의 수명, 인구의 구성, 생존자를 통해 인구통계학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Beiswenge, 1993; Carmack, 2002; Hohn, 2010). 비석에 새겨진 문학적인 내용과 비석의 문양 및 양식은 문학, 미술, 건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오래도록 보전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 자연은 생태와 환경교육에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Carmack, 2002; Smith, 2003).

표 5에서와 같이 미국에서 묘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단체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는 100여 개소의 국립묘지 중 12개소와 마운트어번묘지 등 역사적인 묘지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죽음과 자연에 대한 태도나 19세기 초 가족들의 삶, 묘지의 역사와 역

표 5.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미국 묘지 활용 사례

운영주체	구분	대상	장소	연계교과	내용
National Park Service	중앙정부법인	중고생	국립묘지, 지역사회묘지	사회, 역사, 조경, 원예, 생태, 문학	죽음, 자연에 대한 태도, 19세기 초 가족들의 삶, 묘지의 역사와 역할, 묘지 경관이 방문객의 감정과 느낌에 주는 영향, 묘지 본래의 디자인이 주는 영향 분석, 가드닝 프로그램[8], 탐조, 곤충 등 생태교육
Education Committee of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학회	대학생	지역사회묘지	생태학, 묘지 인구통계학	11개 대학과 1992년부터 비문에 나타난 기록 수집하여 인구통계학 학습, 생태프로그램
Arkansas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	지자체	초중고생	지역사회묘지	사회, 언어, 과학, 수학, 미술	지역사회의 역사, 과거세대의 영향, 묘지에서의 예절, 묘소 돌보기, 역사적 묘지에 대한 고마움, 묘지와 죽음에 대한 감정의 분석
4Culture's Heritage Cultural Education Program and HistoryLink.org	지자체	고등학생	지역사회묘지	역사, 미술, 인구통계학	비석, 비문, 부고, 관련 신문기사, 가족 기록물 등
Community Historical Archaeology Project with Schools	학교	초중고생	지역사회묘지	사회, 과학, 건축	지역묘지에 대한 인식, 사람의 성씨, 묘지의 식물과 동물, 방위, 비석의 유형
Kansas City Public Television 19	방송국	중학생	지역사회묘지	건축, 미술, 문화, 역사	시대별 건축양식, 예술과 상징, 종교, 역사·문화
Urban Resource Initiative	NPO	초등학생	지역사회묘지	생태, 과학, 사회	숲생태 및 야생동식물 서식처, 지형학, 암석의 풍화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학회	초등학생	지역사회묘지	역사, 사회, 미술	독도법, 묘지 방문 예절, 비석에 사용된 상징 알아내기, 지역사회의 역사, 과거 지역사회의 뛰어난 인물, 탁본, 묘지투어

할, 묘지의 경관에서 느끼는 방문객의 감정, 그 느낌이 주는 영향, 묘지의 디자인이 주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학습하게 한다(Heywood and Breitkreutz, 2002).

미국생태학회에서는 1992년부터 11개 대학과 지역사회의 묘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묘지의 비석에 나타난 사망자의 기록에서 특정시기에 사망한 사람과 생존자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구통계학과 생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칸사스주 역사보전프로그램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역사, 과거 세대의 영향, 묘지에서의 예절, 역사적 묘지에 대한 고마움, 묘지와 죽음에 대한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Pennel, 2005). 워싱턴 킹 카운티의 문화업무국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석에 기록된 비문, 신문의 부고, 가족의 기록물을 통해 역사, 미술, 인구통계학에 대한 학습자료를 지원한다(File and Roth, 2009). 텍사스팬아메리카대학교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묘지에 대한 인식, 지역민의 성씨, 묘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비석의 유형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한다(Ramirez, 2010). 캔사스시 공영방송국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석, 묘지, 조형물의 시대별 건축양식, 미술, 비석에 나타난 상징물, 종교, 역사, 문화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코네티컷 뉴해븐의 도시자원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역사적인 묘지에서 숲생태와 도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암석의 풍화와 지형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Urban Resource Initiatives, 2010). 위스콘신 역사학회에서는 독도법, 묘지방문예절, 비석에 나타난 상징물, 지역사회의 역사, 인물에 대한 학습과 비석의 탁본 및 묘지투어를 진행한다. 묘지관리주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대학, 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같이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가 특정 묘지보다는 지역사회의 묘지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거나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묘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보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 묘지를 학습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지역의 인물과 역사, 자연에 대한 학습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은 갖게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한국

우리나라 묘지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대부분 학습장소인 묘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묘지 유형별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진행현황은 표 6과 같다.

(1) 국립묘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는 국민적인 추모의 대상이 영면(永眠)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역이며, 역사문화공간이다(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9). 국립묘지에서는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화와 전시관을 관람하며 묘소돌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충일과 특정 기념일에는 헌화, 참배, 음악회 등 일회성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외에 역사, 문화,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 왕릉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선왕릉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왕릉터를 둘러싸고 있는 숲이 울창하여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이다. 조선왕릉은 역사문화해설과 함께 숲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친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해설에만 치중하던 것을 탈피하여 유적지가 갖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공동묘지

자연발생적인 집단묘지가 아닌 지자체나 법인이 설치한 공동묘지는 유족들의 방문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이다. 그러나 공동묘지에서는 교육적인 학습프로그램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의·인성 교육넷”에서 서울지역 공동묘지 교육프로그램으로 검색된 자료는 방학동천주교묘지 프로그램이다. 묘지에 안장된 유명 문학가들의 비석을 찾고 그의 문학작품에 대해 자원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며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만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4) 묘지공원

망우리묘지공원은 도시공원의 한 유형인 묘지공원이자 서울시민을 위한 시립묘지이다. 그러나 1933년 문을 연 망우리묘지공원은 1973년에 이미 만장되어 더 이상 매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와 문학가의 묘지로 유명하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문화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조성된 외국인묘역으로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장소이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서양식 묘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자원활동가에 의해 역사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

표 6. 한국 도시묘지 유형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 현황

구분	장소	운영기관의 구분	운영기관	진행자	대상	회당활동 규모	연계교과	내용
국립묘지	국립서울현충원[a]	중앙정부	국방부	자원봉사자	어린이, 청소년, 시민	30인 내외	과학, 사회, 도덕, 실과, 체육	전시회 관람, 애국지사 묘역 순례, 호국안보현장 견학
	국립대전현충원[b]	중앙정부	국가보훈처	전문해설사	유·초·중·고생	20인 이상	국어, 사회, 도덕	현충탑 참배, 호국영화 관람, 전시장 관람, 묘소돌보기 체험학습
	국립민주묘지[c] 국립호국원[d]	중앙정부	국가보훈처	상근교사	유·초·중·고생	30인 내외	국어, 사회, 도덕	나라사랑 체험학교 프로그램, 애국지사 묘소 탐방, 강북구 문화재 답사, 백범기념관, 서대문형무소 견학, 가족단위 음악회 참석
왕릉	선정릉, 정릉, 의릉, 헌인릉, 태강릉 등[e]	중앙정부	문화재청 한국의 재발견	문화관광 해설사	누구나	20인 내외	역사, 문화, 생태	왕릉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숲 이야기와 숲 생태놀이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숲과 문화재를 함께 생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전통민속놀이체험, 짚풀공예 무료체험
공동묘지	방학동 천주교묘지	법인	방학동 성당	자원활동가	초중고생	5인 이상/ 방학기간	역사, 문학	문학가의 묘비를 찾고 문학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학습
묘지공원	망우리 묘지공원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중랑구청	문학 탐방 문화해설사	유치원, 초·중학생	20~100인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독립지사 활동 발표, 시짓기, 태극기 만들기,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및 만세 삼창 후 산책, 7.13도 창의군 탑참배, 정미의병의 활동 탐색 및 발표
	서울외국인 묘지공원[f]	종교단체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선교회	자원활동가	초중고, 청장년	20인	역사	양화진 소개영상, 애니메이션, 선교사 소개 영상 안내, 묘역안내

자료: [a]: http://www.snmb.mil.kr, [b]: http://www.dnc.go.kr, [c]: http://419.mpva.go.kr, http://315.mpva.go.kr, http://518.mpva.go.kr, [d]: http://www.icnc.go.kr, http://www.ycnc.go.kr/, http://www.isnc.go.kr, [e]: http://royaltombs.cha.go.kr, [f]: http://www.yanghwajin.net

되고 있다.

3) 한국과 미국의 묘지 교육프로그램 비교

묘지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교과목은 사회, 역사, 문학, 인구통계학, 미술, 생태, 수학, 과학, 건축, 조경, 원예 등 다양하다(표 7 참조).

미국의 프로그램 중 비석의 문양이나 상징성에 대한 학습부분은 일반 묘지에서도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왕릉과 서울외국인묘지공원에서 가능한 학습방법이다. 인구통계학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적이 없지만 어느 비석

표 7. 한국과 미국의 묘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교과별 비교

연계교과	미국	한국
사회	· 과거세대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 묘지에서의 예절 바르게 알기 · 묘소 돌보기 · 묘지와 종교	· 호국 안보 현장 견학 · 나라사랑 체험학교 프로그램(전시관, 홍보물 관람) · 참배, 묘비 닦기
역사	· 지역사회의 역사 · 탁본 · 지역의 뛰어난 인물, 부고, 가족 기록물 수집 분석	· 왕릉 역사 해설 · 안보 영상 감상 · 기념관 관람 · 민속놀이
문학	· 묘지에서의 감상문 작성	· 문학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설
인구통계학	· 비문에 기록된 인구통계학적 자료 수집 및 분석(성별, 나이, 성씨 등)	-
미술	· 비석 문양의 상징, 조각품	· 짚풀공예
생태	· 탐조, 곤충 관찰, 동식물의 서식처 · 숲생태	· 숲체험
수학	· 통계 분석	-
과학	· 암석의 풍화작용	-
건축	· 묘비와 무덤의 시대별 건축양식	-
조경	· 묘지의 경관과 디자인이 방문객에게 주는 감정과 느낌에 주는 영향	-
원예	· 가드닝 프로그램	-

에든 생년월일과 사망일자가 있으므로 성별과 성씨, 수명, 가족의 수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통계수업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재 왕릉과 국립묘지에서 진행되는 역사수업을 묘지공원과 공동묘지에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도시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 시설 평가

도지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평가 결과는 표 8과 같다.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안보교육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생태교육 전문가는 상주하지는 않지만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요소의 평가등급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국립묘지는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도보이용권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지하고 있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이용이 편리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시설 확보면에서도 국립묘지는 전시관, 상영관, 박물관,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자연자원은 갖추고 있지만 모든 자원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현충원은 양호등급, 대전현충원과 민주묘지, 호국원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면에서는 서울현충원은 5개 교과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대전현충원은 양호등급, 민주묘지와 호국원도 마찬가지로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안정성면에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벤트성의 비정기적 프로그램도 진행하므로 모두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총괄평가 결과 서울현충원은 96점으로 Ⅰ등급, 대전현충원과 민주묘지, 호국원은 88점으로 Ⅱ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왕릉은 왕릉해설과 숲해설 전문가가 상주하지는 않지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피교육자가 도보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시설면에서는 관리사무소는 있으나 실내교육장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자연자원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왕릉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측면에서는 역사, 문화, 생태의 세 가지 교과와 연계되어 있어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안정성면에서는 절기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비정기적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하므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공동묘지는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진 음악회, 전시회 등이 간혹 개최되는 일을 제외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방학동 천주교묘지에서는 작가 염상섭, 농민운동가 이무영의 묘비를 찾는 수준에서 답사탐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암울했던 상황에 대한 글을 쓰는 실습창작활동이 진행된다. 그러나 여름방학이라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해설가가 준비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확보면에서는 보통등급이고, 접근성면에서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시설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미흡등급을 받았고, 자연자원은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미흡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역사와 문학, 두 가지 교과와 연계되어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공동묘지의 총괄평가 등급은 Ⅴ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묘지공원은 성묘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일상적인 산책과 운동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공원이다. 망우리묘지공원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비문과 안장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시 짓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교육자가 확보되어 있어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피교육자측면에

표 8. 우리나라 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평가

요소	항목	한국						
		국립묘지			왕릉	공동묘지	묘지공원	
		A	B	C	D	E	F	G
인적요소	교육자	4	4	4	3	2	2	4
	피교육자	4	4	4	3	4	4	4
물적요소	시설	4	4	4	3	1	2	4
	자연자원	3	2	2	3	1	1	1
운영체계	프로그램	4	3	3	3	2	4	1
	안정성	4	4	4	4	2	2	3
합계		23	21	21	19	12	15	17
100점 환산		96	88	88	79	50	63	71
등급		Ⅰ	Ⅱ	Ⅱ	Ⅲ	Ⅴ	Ⅳ	Ⅲ

A: 서울현충원, B: 대전현충원, C: 민주묘지, 호국원, D: 조선왕릉, E: 방학동천주교묘지, F: 망우리묘지공원, G: 서울외국인묘지공원

서는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시설면에서는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연자원은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미흡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은 국어, 사회, 미술, 음악과 융합교육이 진행되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망우리묘지공원의 총괄평가 등급은 Ⅳ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기념관을 갖고 있는 서울외국인묘지공원에서는 관련 홍보물을 관람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수준으로 학습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 교육자가 확보되어 있어 교육자 항목에서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므로 도보이용이 가능해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미흡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의 교과연계 측면에서는 역사교과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진행의 주기는 정기적이므로 안정성면에서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일반인이 많고 그 수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교육으로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탐구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의 총괄평가 등급은 Ⅲ등급으로 평가되었다.

3. 우리나라 묘지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용 문제점 및 제안

1) 인적요소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제안

묘지를 활용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묘지나 왕릉 같이 연중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는 전문 교육자가 상주하거나 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동묘지나 묘지공원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묘지 인근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의 체험활동이나 시민교육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묘지에서의 교육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적인 자원과 자연을 함께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물적요소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제안

우리나라 묘지에서는 견학관람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면에 있어서도 역사, 사회, 문화학습에 치우치고 있다. 미국의 묘지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려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묘지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묘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위생과 경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단지 시신을 처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그 이후에도 묘지는 국토를 잠식하는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지만 재정비 및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묘지의 경관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묘지는 급경사에 계단식으로 묘역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인 분묘와 비석을 세운 모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그늘 하나 없는 초지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림을 절토하면서 발생한 급경사 절개면은 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묘지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 묘지의 토지이용과 경관조성도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상변화에 대처한 피난장소와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묘지에는 관리사무소는 있으나 대개 협소하고, 성묘객은 물론이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장으로서 묘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경관과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묘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장 ·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부지면적에 대해서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 휴양시설 · 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 · 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과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녹지율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거나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도시의 생물다양성 등 생태성 강화 측면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시녹지에 대한 비오톱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녹지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경관계획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녹지축과 경관축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구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신규 묘지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묘지의 경우에는 경관과 생태적인 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묘지의 안장자들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이 필요하고, 휴식과 학습이 가능한 쉼터 또는 방문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00,000m^2 이상의 묘지 조성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설치된 소규모 묘지가 학습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될 때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의 구축 및 홍보와 지면을 통한 홍보물의 비치를 통해서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3) 운영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제안

현장체험학습은 각종 시설과 자연자원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학습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묘지를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묘지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활용가능성이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자원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묘지의 자연환경, 방문자센터,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예산, 활용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묘지는 도시 내의 어떤 공공시설보다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고 융합교과 교육[9]이 가능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

4) 도시묘지 유형별 제안

국립묘지는 현재의 조건에서도 실내·외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도 갖추고 있다. 국립묘지에서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비문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수업을 하고, 숲해설을 통해 생태학습까지 연계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 왕릉의 경우도 국립묘지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묘지의 면적이 넓고 산림과 초지 또는 계곡이 있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립묘지와 왕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야생동식물의 종목록과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인 교육에 포함시키고 외래종을 제거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생물종 목록을 수집하는 것은 묘지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자연보전의 효과는 풍부한 자원 확보로 이어져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개소수도 많은 공동묘지는 지금까지 교육 장소로의 활용도가 매우 낮지만 묘지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이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일정시간 머물면서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족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묘지공원이나 공동묘지는 다른 도시공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지 내에 담을 수 있는 자원도 다양하다. 묘지의 리모델링을 통해 수목식재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자생수종을 도입하여 동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면 미국사례와 같이 풍부한 자원을 갖춘 도시 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녹지의 확보는 현재의 초지를 일부 유지하되 성묘객과 관리자에 의한 묘지 가드닝을 시도하면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식물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생물서식처 조성, 이용객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

표 9. 재정비 후 도시묘지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평가

요소	항목	한국						
		국립묘지			왕릉	공동묘지	묘지공원	
		A	B	C	D	E	F	G
인적요소	교육자	4	4	4	3	2	3	4
	피교육자	4	4	4	3	4	4	4
물적요소	인문자원	4	4	4	4	2	3	4
	자연자원	4	4	3	3	3	3	2
운영체계	프로그램	4	4	4	4	3	4	2
	안정성	4	4	4	4	2	3	4
합계		24	24	23	20	16	20	20
100점 환산		100	100	96	83	67	83	83
등급		Ⅰ	Ⅰ	Ⅰ	Ⅱ	Ⅳ	Ⅱ	Ⅱ

A: 서울현충원, B: 대전현충원, C: 민주묘지, 호국원, D: 조선왕릉, E: 방학동천주교묘지, F: 망우리묘지공원, G: 서울외국인묘지공원

경 조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묘지유형별로 재정비 후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 개선 가능한 항목을 표 9와 같이 재평가하였다. 대전현충원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모든 항목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 받고, 총괄등급이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민주묘지와 호국원도 마찬가지로 보유한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학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정비하였을 때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왕릉은 계절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전천후 프로그램과 주 이용객인 학생단체 또는 가족단위의 피교육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 Ⅲ등급에서 Ⅱ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개소수가 많은 공동묘지의 경우 시설물을 추가하기보다 보유한 자원을 먼저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활용도가 높은 현장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다.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은 인문자원을 활용한 학습을 보강하고,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를 정비계획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경우 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의 공원화사업이 추진 중인 묘지에서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계획을 함께 진행한다면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비에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활용도가 높게 평가된 묘지유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건위생시설이자 시신의 처리장소로만 알려져 온 묘지에 대해 도시 내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현재는 소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묘지는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묘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도시는 더욱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묘지의 경우 묘지가 보유한 물적요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묘지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 역사, 지리, 문학, 생물, 생태, 환경, 통계, 건축, 조경, 미술교육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묘지에서 우리나라 묘지보다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묘지의 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일반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성된 숲을 잘 보전하여 묘지의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의 서식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묘지를 학습의 대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묘지는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점점 지역과 접근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묘지 사용자는 묘지가 입지한 지역과 연고가 없게 되었다. 또한 현재 묘지의 입지조건, 분묘의 배치와 형식, 묘지가 갖고 있는 경관과 이미지, 묘지 부지 내 토지이용현황으로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묘지가 갖는 이런 문제점을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나 이전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묘지의 조성 및 재정비로 장묘문화를 변화시키고 묘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묘지를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인적, 물적요소와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묘지유형별 평가등급은 각 묘지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여부만을 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과 교육자의 질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다루지 않았다. 향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묘지가 가진 학습기능 및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묘지가 가진 경관적 가치, 자연환경 가치, 역사문화 가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묘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므로 학습적 가치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영역, 공동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주 대상을 학생층으로 삼았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거리인 1.5km 이내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1km를 고려하여 도보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지역사회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주 2,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목장(樹木葬)은 자연장의 범주에 포함되며, 특별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말한다. 2012년 5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서울지역에는 자연장지가 설치된 묘지가 없다.

주 4,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바꾸어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또는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원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 6, 7. 도시의 위생을 위해 시작된 전원묘지운동은 프랑스의 페르라쉐즈묘지의 영향을 받았으며, 영국의 조경설계로 대중화된 가정적인 풍경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이 전원묘지운동에 의해 최초로 조성된 마운트어번묘지는 종교와는 상관없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묘지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국전역과 유럽에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동안 미국의 서민들은 이용할 수 없던 세련된 예술조각품이 있는 가운데서 대중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다. 마운트어번묘지 이후 이와 유사한 묘지가 계속해서 조성되었으며, 대중들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묘지 이용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공공공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주 8. 전원묘지운동으로 시작된 미국묘지의 공원화는 묘지에 수목과 초화류를 다양하게 심게 하였고, 세월이 흐르면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었으며, 마치 수목원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묘지에 초화류를 가꾸기 위해 성묘객에게 가드닝을 가르치게 되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가드닝 교육을 하는 동안 묘지 내에 식물원을 갖게 되었다.

주 9.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교과를 융합하여 교과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통합적 교육방식으로,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력의 확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교육방식이다.

인용문헌

1. 강영혜(1999) 체험학습의 이론적 기초. 열린교육연구 7(2): 5-18.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3. 김성경(2004) 도시하천을 활용한 현장학습 적용: 서울 양재천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원중(2010) 망우리 공원묘지와 연계한 역사 수업 지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인호(199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환경교육장(場)' 활용을 중심으로. 환경과생명 12: 80-91.
6. 김인호, 김귀곤(1998) 환경교육의 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11(1): 195-216.
7. 김인호, 안동만(1997) 우리 나라 사적지 환경해설 현황과 방문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10(2): 191-211.
8. 김호중(2003) 사회과 현장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민길홍(2008) 중학교 역사교육에서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서울지역 선사시대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박은경(2010) 중학교 교과과정 분석을 통한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박종천(2010) 상제례의 하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 363-397.
12. 박재영(2004) 지리교육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의 실천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박태호(2006) 장례의 역사: 고인돌부터 납골당까지, 숭배와 기피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14. 변성우(2010) 현장학습 장소로서의 지역하천 탐구-홍제천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재미쑥쑥 신나는 현장체험학습.
16. 송현(2009) 망우리 공원묘지의 역사문화체험학습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명기, 홍재호, 한승록, 이달우, 강원모(2000) 지역사회내의 현장 체험학습장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연구 16: 53-91.
18. 장철수(1995) 옛무덤의 사회사. 서울: 웅진출판.
19. 정수정(2008) 국내 환경교육장(環境敎育場)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2008년 상반기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pp. 67-71.
20. 정수정, 이재영(2009) 일본 환경교육시설 조사 분석과 시사점. 한국환경교육학회. 2009년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78-81.
21. 정재승(2011) 고등학교 지리과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연구 6(2): 71-97.
22. 최석진, 김인호, 금지헌, 조길영(2010)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환경교육. 23(3): 126-139.
23.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2009)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연구.
24. 황홍섭, 이상례(2001) 초등 사회과 현장학습 실태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3: 29-57.
25. 홍기대(1999) 초등 사회과 지역조사 활동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지도. 사회과교육 32: 257-28.
26. 홍석기(1997) 프랑스 묘지정책의 과제. 한국토지행정학회지 6(1): 165-186.
27. Beiswenge, J. M.(1993) Experiments to Teach Ecology.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28. Bowden, S. H.(2006) Here lies.... Cemeteries as historical and artistic lessons for primary-age children: A teacher's K-W-L plan. Childhood Education 83(2): 87-91.
29. Bruce, M., B. J. Smith and Cortland-Madison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C.(1975) The Cemetery: An Outdoor Education Unit.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30. Carmack, S. D.(2002) Your Guide to Cemetery Research. Cincinnati: Betterway Books.
31. File, P. and C. Roth(2009) These are Matters of Grave Importance. HistoryLink.org.
32. Greene, M.(2008) Rest in Peace: A History of American Cemeteries. Mineapolis: Twenty-First Century Books.
33. Heywood, J. and C. L. Breitkreutz(2002) Mount Auburn Cemetery: A New American Landscape. Teaching with Historic Places. National Park Service.
34. Hohn, F.(2010) Human Population Dynamics. Activity: Cemetery Demographics.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35. Hurst, D. L.(1977) A Cemetery Study.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36. Lee, M.(1969) The Cemetery. Taft Campus Occasional Paper No.1.
37. Pennel, E.(2005). Historic Cemeteries: History Written in Stone. Arkansas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
38. Ramirez, V.(2010) A Trip to the Cemetery. Community Historical Archaeology Project with Schools.
39. Smith, S.(2003) Cemeteries-Windows to the Past. Curriculum Associates.
40. Urban Resource Initiatives(2010) Open Spaces as Learning Places-Cemetery Unit. Open Spaces as Learning Places Curriculum. Yale School of Forestry & Environmental Studies.
41. http://315.mpva.go.kr
42. http://419.mpva.go.kr
43. http://518.mpva.go.kr
44. http://environment.yale.edu
45. http://eric.ed.gov
46. http://royaltombs.cha.go.kr
47. http://www.berlin.de
48. http://www.crezone.net
49. http://www.dnc.go.kr
50. http://www.icnc.go.kr
51. http://www.isnc.go.kr
52. http://www.kcpt.org/stories
53. http://www.lessonplanet.com
54. http://www.nps.gov
55. http://www.sen.go.kr
56. http://www.snmb.mil.kr
57. http://www.yanghwajin.co.kr
58. http://www.ycnc.go.kr

원 고 접 수 일: 2012년 5월 14일
심 사 일: 2012년 6월 26일(1차)
2012년 10월 5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2년 10월 17일
4인익명 심사필